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회원간의 격려와 귀한 교제가 있는 모임이 되기 바랍니다(찬송, 기도, 안건 토의).
- 오는 금요일(10일) 저녁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저녁 7시30분, 특송: 터키 공동체). 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 8월 19일 주일을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불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권면과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 휴무 안수 집사인 경덕현 집사는 오늘부터 시무 안수 집사로 복귀합니다.
-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 졌습니다. 일찍 오시는 성도들은 뒤에 오시는 성도들을 위해 주차 봉사자의 안내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경 통독이 끝났지만 마치지 못한 성도들은 계속 통독하시고 완독한 분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뷰티플마인드 Charity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 갈보리 나무십자가 찬양대가 Auckland Inter-Churches Multicultural Choral Service 에 참여합니다. 일시: 8월 11일(토) 저녁 7시, 장소: Auckland Baptist Tabernacle, 429 Queen St. City



2018년 6월 27일 2여선교회 주관 수요헌신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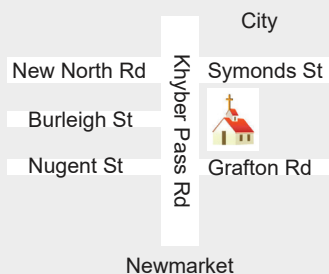
2018년 8월 5일 주일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섬기는 사람들



주일 1부 예배	주일 AM11:20
주일 2부 예배	주일 PM1:00
청년 예배	주일 PM3:15
수요 예배	수요일 PM7:30
새벽 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박태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히브리서 11:6
◎ 찬 송	큰 영화로신 주 35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
대 표 기 도	김철재 집사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12:1-3
찬양대 찬양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지으심이라/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이기는 습관 2/ 이태한 목사
특 별 찬 양	뷰티플 마인드 charity
찬 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기 도	박제용장로
성경봉독	누가복음 13:10-17
설 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이태한목사
찬 송	423장
주 기 도	다같이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 마현정 자매

8월 교회 사역

8월 10일(금요일): 저녁기도회
 8월 19일(주일): 전도주일
 8월 26일(주일): 권사기도회
 8월 29일(수요일): 공동체 주관 예배

8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김선화 집사
 다음 주일: 박덕철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유태림 형제
 8월 15일 수요일: 박일영 장로
 8월 15일 애찬: 최희숙 집사
 8월 19일 주일: 손조훈 집사
 8월 19일 청년부: 박예원 자매

8월 예배 봉사자

예 배 안 내: 허영순/손조훈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 차 안 내: 김교섭/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김민경/민경아

금주의 기도제목

1.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2. 말씀을 가까이 하며 혼탁한 시대에 거룩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는 성도가 되도록.
3. 복음 전파를 위해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영육으로 강건하고 안전하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살롬! 대한민국은 연일 불볕 더위인 폭염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서인지 이곳 캄보디아가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덥습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해 드립니다.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의 한인도 그 숫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앙코르왓으로 유명한 씨엠립도 한인들이 고작 400명 안팎입니다. 수도인 프놈펜도 교민수가 많이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선교사 숫자만 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간 이식 후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수혜자인 이 선교사님의 건강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태국 현지로부터 종종 듣고 있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기도해 주신 동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가정사를 잠시 말씀 드리자면, 8월 12일은 제가, 13일은 아내가 다시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8월 20일경 용인에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로 입주하여 남은 안식년을 보내게 될 것이며 아내는 8월 21일부터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석사 과정을 한 학기를 공부하고 저와 함께 캄보디아로 들어올 듯 합니다. 그리고 솔, 송 쌍둥이는 8일에 대입검정 고시를 치룹니다.

안식년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할 지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어서 여러모로 걱정과 염려가 되기에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형편따라 살지 않고 비전 따라 살려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 동역자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께서서 이따금씩 주시는 글이 힘이 됩니다. 주안에서 모든 동역자 여러분 내내 평안 하십시오. 캄보디아에서 이형식 선교사 올림

기도제목

1. 남은 안식년이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2.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날마다 더 순종하도록.